

관찰과 추론을 두 칸으로 나눠 기록하기

똑똑 · 에디터 모아 · 발행 2026.09.30

실제로 본 것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분리해 검토합니다.

수치·상황·인물은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. 특정 학교·제품·사람에 관한 조사 결과가 아닙니다.

쉬운 설명

실제로 본 것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분리해 검토합니다. 관찰은 눈금·색·움직임처럼 확인한 내용이고 추론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생각입니다. 기록할 때 시간, 도구, 단위와 관찰된 변화를 적습니다.

핵심

- 관찰은 눈금·색·움직임처럼 확인한 내용이고 추론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생각입니다.
- 기록할 때 시간, 도구, 단위와 관찰된 변화를 적습니다.
- 관찰에도 도구의 오차와 관찰자의 선택이 들어갑니다.

개념 · 무엇을 구분하나요?

관찰은 눈금·색·움직임처럼 확인한 내용이고 추론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생각입니다. 관찰만으로 원인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. 두 칸을 나누면 다른 학생이 같은 기록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방법 ·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?

기록할 때 시간, 도구, 단위와 관찰된 변화를 적습니다. 이어 “이 변화는 무엇 때문일 수 있나”를 추론 칸에 씁니다. 같은 관찰을 설명하는 다른 가능성도 한 개 적습니다.

가상 사례 · 직접 써 보는 비교

가상 식물 실험에서 잎이 어제보다 아래로 처졌다고 기록합니다. 물 부족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지만 빛·온도·움직인 시각도 확인해야 합니다. 잎의 상태는 관찰이고 원인 설명은 아직 가설입니다.

한계 ·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요?

관찰에도 도구의 오차와 관찰자의 선택이 들어갑니다. 사진이 있어도 색과 각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다른 관찰자와 기록 기준을 맞추면 비교가 쉬워집니다.

직접 생각해 보기

“수온이 20°C였다”와 “차가워서 물고기가 적었다”를 나누세요.

확인 설명

20°C는 측정 관찰이고 물고기가 적은 원인을 수온으로 돌린 문장은 추론입니다.

관찰과 추론을 왜 다른 칸에 적을까요?

관찰은 눈금·색·움직임처럼 확인한 내용이고 추론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생각입니다. 관찰만으로 원인이 자동 결정 되지는 않습니다. 두 칸을 나누면 다른 학생이 같은 기록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. 관찰에도 도구의 오차와 관찰자의 선택이 들어갑니다.

이 글의 사례를 실제 학교나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?

사례는 읽기 연습용입니다. 실제 판단에는 해당 장소·시기·대상과 원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.

원문과 출처

- Science Buddies · What are Variables? — <https://www.sciencebuddies.org/science-fair-projects/science-fair/variables: Independent; dependent; controlled variables: 바꾸는·재는·갈게 둘 조건>
 - Library of Congress · Teacher's Guides and Analysis Tool — <https://www.loc.gov/programs/teachers/getting-started-with-primary-sources/guides/>: Primary Source Analysis Tool: 관찰·성찰·질문
- 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: <https://www.dokdok.co/about#editorial>

온라인 원문 ·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https://www.dokdok.co/reading/daily-2026-10-12>